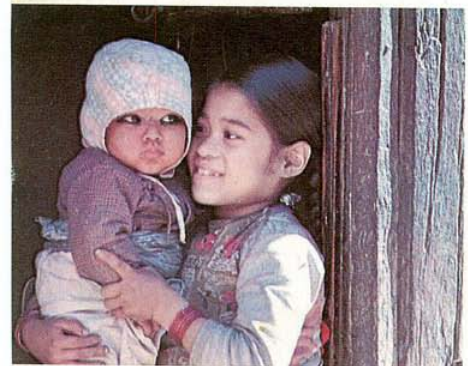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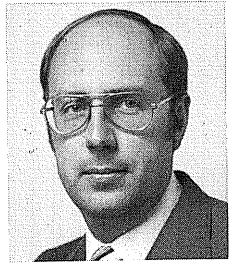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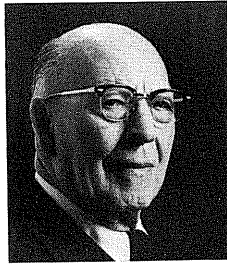




성도의 빛 3
1981





성도의벗 3 1981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зра 태프트 밴슨
마크 이 피타슨
리글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퍼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침.....엔 엘돈 태너 대관장단 제1보좌..... 1

그대의 영원한 동반자.....스펜서 제이 콘디..... 5

질 의 응답..... 10

되돌아온 축복.....한스 빌헤름 켈링.....13

깊이 생각해야 할 일들.....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15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을 사랑함.....데니스 알 퍼터슨.....17

선인장, 십자가, 부활.....제프리 알 홀랜든.....21

기도.....수잔 피엘레.....24

존 테일러.....27

심심풀이.....28

승리로 이끈 투쟁.....콘스탄스 폴브.....29

여러분은 졸업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딘 엘 라슨 장로.....33

십일조와 축복.....케이스 무어.....36

선교사가 되라.....리글랜드 리차즈 장로.....37

지역 지도자 메시지.....최 옥환 서울스테이크 부장.....45

해 의 소식.....47

지역 소식.....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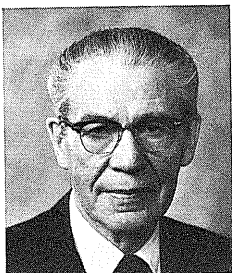
통 권 : 제188호, 제17권 제3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딜
번 역 : 함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51KO PRINTED IN SEOUL, KOREA 3/81 International magazine

© 1981년
제단 번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인 소유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침

엔 엘튼 태너
대관장단 제 1 보좌





엔 엘튼 태너
대관장단 제 1 보좌

가정을 주셨네.

(후렴)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뜻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다 함께 노래를 B-76)

이 메시지는 현재 교회 지도자로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언젠가는 그러한 직책을 맡게 될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따르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곧 지상의 그분의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살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 예언자의 지시를 받아 일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오늘날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의 모든 일을 지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간증드립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사로 부름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부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사로 성별되었든 안되었든,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교사입니다. 구체화 자신도 모든 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미대륙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신 일을 생각할 때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와 그의 생애의 다른 이야기와 그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이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크신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예수께서 미대륙의 백성을 방문하신 사실에 대한 성구를 읽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니,

“저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그 둘레에 앉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한가운데 서시었고 어린 아이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우리가 길을 비켜 주었으며,

“저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앉자 예수께서 마음으로 피로와하시며 이르시기를,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간악함에 마음이 편안치 못하나이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날날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그의 간구를 들은 자들이 그들을 바로 증거하였고,

“저들의 증거함이 이러하였더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왔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

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마치시고 일어서시었으며 우리가 큰 기쁨에 취해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명하여 일어서라 하시니,

“그제야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 우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니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올려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 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 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삼 17:11-24)

여러분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을 그러 볼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훌륭한 이야기나 그림이나 모범으로 훌륭한 생각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조금도 의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이분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음을 알고 간증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가졌으며,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없으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모든 일에 있어 그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남들이 알 수 있게 생활합니다. (교성 59: 5 참조)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시리라”(요 15: 10)

나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의 훈계와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여러 번 경험했고, 또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33)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흥미를 갖고 세상적인 일을 즐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교훈보다는 모범이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기억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의 소리가 너무 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격언을 잊지 마시다.

만일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이 합당하게 생활해서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좇으라”(눅 18: 22)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위대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수년 전에 배운 이 노래의 가사가 언제나 내 심금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내 운명 당신께 달렸으니
성공하든 실패하든
뜻대로 하옵소서.
행복하게 되도록 가르쳐 주소서.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가르쳐 주소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모범과 언어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의무의 일부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할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

“그대의 영원한 동반자”

약속된 성신의 축복

스펜서 제이 콘디



구세주는 지상에서 성역이 끝날 무렵, 불가피한 이별을 위해 사도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한복음 14: 16)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요한복음 16: 7)

이 말씀은 초대 교회의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신은 사도와 예언자뿐만 아니라 합당성에 따라 부모와 자녀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에게도 함께 합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록한 보혜사에 관한 통렬한 설교에서 주님께서 성신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 영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요한복음 14: 18)

아기를 낳다가 죽은 한 젊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날 무렵, 그곳에 참석한 회중 사이에는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거기서 행해지는 조사는 더욱 애처로웠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째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4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을 남겨 둔 채 그와 같이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장례식의 공식적인 순서가 끝날 무렵

그 젊은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슬픔과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 낼 수 있으며, 아내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부드럽고 화평스러운 영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이 남편에게 임했던 위로의 영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책망하시리라”(요한복음 16: 8)

베냐민 왕은 그의 위대한 축복 설교 가운데 성도들에게 육으로 난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모사이야서 3: 19) 맡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극복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엘마는 형제들에게 “성령을 대적하여 다투지 말”(엘마서 34: 38)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성신의 인도가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것을 절실하게 느낀 어떤 청년 실업가에 관한 실화가 있습니다.

존슨 형제(가명)는 20년간 흡연의 악습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자신과 주님과 교회 활동 사

이에 표면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바람부는 겨울날, 그는 직장에서 출담배를 피우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무능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에 미묘한 영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그 영은 그에게, 종업원들에게 가서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고 쉬겠다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음

고 간곡히 간구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한 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를 잃어 댔던 죄사슬은 끊어졌읍니다. 그는 진리를 구했고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는 6개월 후에 자신이 속해 있는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실하고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 : 26)

명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하는 한 대학 교수가 대학원에서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종 구두 시험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다가오는 시험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구두 시험이 있는 전날 밤, 이 젊은이는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다음날 아침에 질문받을 내용이 선명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사 시험 위원의 첫 질문은 그 전날 밤에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바로 그 첫 질문과 일치했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질문은 전날 밤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바로 그 질문과 순서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훌륭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의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데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종들 가운데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나는 용모와 달변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문장력이 아니라 성신의 능력입니다.

니다. 눈이 내려 깊이 쌓인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획된 은밀한 산골짜기로 걸어갔읍니다. 그는 주님께 소리쳐 열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눈 속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허리까지 차서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며, 주님께 자신이 니코친의 해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힘을 달라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다.”(니이 33 : 1)

어떤 잘 생긴 미국 청년이 수주일간 체코슬로바키아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언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가운데 체코 사람들에게 체코 말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과 관심있는 구도자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할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숙련된 동반자가 연설 내용의 쓰는 것과 이 어려운 말의 발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서 이 군중을 대해야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선임 동반자는 이 후임 동반자가 체코어의 문법을 모조리 어기는 것을 들으면서 피로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음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모임을 마치자 그 젊은 장로는 다소 당황하고 의기 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성 구도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역자를 통해서) “나는 당신이 말씀한 모든 것이 진실임을 믿습니다.……나는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다.”(니이 33 : 1)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종들 가운데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나는 용모와 달변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

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문장력이 아니라 성신의 능력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한복음 14 : 26)

똑똑해 보이는 4형제가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을 때 이 젊은 부부는 근심스러운 듯이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달 전에 분만한 쌍둥이 아기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 살과 다섯 살 된 큰 애들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들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들을 호기심에 차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스테인크 부장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의 남편을 시온의 새로운 와드의 감독으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어린 네 자녀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감독의 직책을 행하는 동안 자신에게 부여될 더 큰 책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남편을 돕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와 같은 부름이 언젠가는—그가 40대나 50대가 되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오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겨우 30세가 되었습니다. 그 부름이 주어지기 며칠 전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느끼고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름의 위대함에 관해 생각하느라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와드를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의 보좌와 상호부조회 역원과 교사, 가정 복음 교사, 주일학교 교사, 와드 합창 책임자,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교성 121:36)

와드 신문의 편집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는 격정과 공허함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스테이크내에 있는 모든 감독들이 스테이크 부장단과 함께 모였습니다.

연세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감독들이 조언과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젊은 감독은 교회 지침서와, 감독 훈련 교재와 신권 공보와 그 외의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그에게 훌륭한 조언과 오랫동안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봉사하면서 겪은 많은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로서의 청지기 직분을 잘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후에 그 감독은 그날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마치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저린 손발로 피가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감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금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후 수년간 와드에서 성도들의 복지에 관한 수백 가지 결정을 내릴 때 늘 성령이 함께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교훈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권의 권능

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성 121:36)

이것이 바로 성신과 하나님의 권능의 영향을 받는 열쇠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교성 121:37)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성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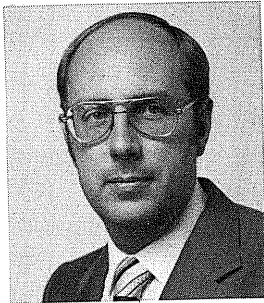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성신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성신의 은사를 유지하는 방법과 공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희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성 121:45-46)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래리 힐러

테이로스빌 유타 센추럴 스테이크, 테이로스빌 9와드 감독, 성도의 벗 본부 편집장

성찬을 들면
안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이 생에서 지는 짐 가

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일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계를 거쳐 죄의 짐을 벗어 버리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경험의 하나일 것입니다.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죄의 짐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잘리워서 악마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대속이 갖는 위대한 의미를 말로써는 참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나의 의식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속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부활하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올바른 방법을 통한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침례 의식은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은 후에 완전히 죄없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과 회개의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위대한 속죄를 마음속에 지니고 침례시에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찬을 제

정하셨습니다.

성찬의 상징물은 우리에게 구세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해 줍니다. 성찬 기도에서 우리는 침례받을 때 맺은 성약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성약이란 우리가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2) 항상 그를 생각하고 (3)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례받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을 들기 전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침례받지 말라. 합당치 않게 그리스도의 성찬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골 9:29)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다음 일요일에 성찬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죄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양심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계속해서 구세주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약속된 대로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성찬을 들어서는 안 됩니까? 성찬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임으로 주님께

서는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 전에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잃은 바와 같이 경전에서서는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미대륙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아무도 합당하지 않게 나의 살과 피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십이라.”(니삼 18:28-29)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가 준 경고는 성찬을 취해야 할 경우와 취해서는 안 될 경우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좌표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성찬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성찬을 취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와드를 관리하는 관리 역원은 감독입니다. 감독에게 죄를 고백하러 오는 자들 가운데 감독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성찬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독은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정도와 개인적인 사정과 기타 감독만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에 의거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 재판에 의해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파문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자격을 회복하거나 재 침례를 받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성찬을 들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의 하나는 성찬을 취해서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자신의 합당성을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를 범했다면 그 일을 합당하게 해결하기까지 성찬을 들면 안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 : 43) 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는 가운데 고백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면 감독에게 가서 상담하도록 권고드리는데 바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고 비밀을 지켜 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그 일을 옳게 처리하며, 용서를 얻고 자신에 관해 훌륭한 생각을 갖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회개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빈정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보다 금주를 보다 의롭게 생활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해 감사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위에서 말한 이

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 전에 스스로 해보아야 할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마음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 “내가 과연 합당한가?” 라고 자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당치 않다고 느낄 때, 성찬을 취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회개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단계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967—68년도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합당치 못함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성찬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성찬을 취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역측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신이 성찬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라도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찬을 전해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찬을 들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성찬식에 빠지거나 체면 때문에 성찬을 취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영육을 위해 저주를 먹고 서서는 안된다.” *

되돌아온 축복

한스 빌헤름 켈링

몇 년 전, 독일의 뮌헨 선교부의 선교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의 신앙을 확인해 주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나의 보조인 브라이스 베타리지 장로와 조지 스미스 장로와 함께 모였습니다. 나는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년 전에 뉴저지주 트렌톤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 관해 말할 때 스미스 장로는 다소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그가 태어난 곳이 바로 트렌톤이라고 말하면서 언제 내가 거기서 선교사로 봉사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가족 배경에 관해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 젊은이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때 일을 회상하게 되었습

니다. 나와 동반자가 그곳에서 지부를 조직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당시, 그곳에는 교회 회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여러 가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칭례를 베풀었습니다. 지부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지부 회원 중의 한 분인 스미스 자매의 남편은 활동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우리에게 와서 특별한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의사는 태아의 발육과 분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경전에 있는 주님의 권고에 따라 주님과 그분의 신권에 대한 큰 신앙을 갖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나의 선교사 일지

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기쁨부음을 인봉했을 때 느꼈던 차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신의 영향을 받아 스미스 자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 앞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나는 전근 발령을 받았고, 몇 달 후에 지방부 대회에서 스미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건강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이 따뜻한 감정과 감사와 겸손한 자량과 나의 영혼에 스며드는 신권의 권능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일지에 이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몰랐으나 그날 내가 그 어린 아기에게 느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마치고 스미스 가족과 서신 연락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교부 사무실에서 스미스 장로와 베터리지 장로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아름답고 훌륭했던 일이 나의 머리 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장로가 21년 전에 내가 안았던 그 아기가 아닐까? 나는 스미스 장로에게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어머니에게 편지하여 그 당시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온 켈링이라는 장로가 축복해 주어서 그의 아들을 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년 전에 주었던 축복을 겸손한 종에게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전 11:1) 그 당시 독일에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봉사하고, 나의 성스러운 부름을 돕던 청년은 바로 21년 전에 내가 도왔던 그 아기였습니다. 스미스 장로는 주님의 신권의 능력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건강과 정력과 위대한 신앙을 얻게 되었으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의 영혼은 주님의 방법에 대한 기쁨과 경이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스미스 장로를 보조로 불렀을 당시 그가 트렌톤에서 태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관리하에 있었던 선교사는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 장로는 영감을 통하여 나의 보조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독일의 뮌헨 선교부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장로와 만난 자리에서 뉴저지 주 트렌톤에 대해 말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스미스 장로는 복음과 그의 부름에 대한 간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신권의 권능에 대한 나의 간증도 확고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절하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분은 그의 종들이 가장 어려운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돕기 위하여 자비롭고 친절하고 강한 격려와 확신을 주십니다. *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지상 생활은 보다 값지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 미래의 자신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오펔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은 알아도 내일 일은 모르는게 사람이예요.”(제 4막 제 5장 42—43행) 17세기에는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조차도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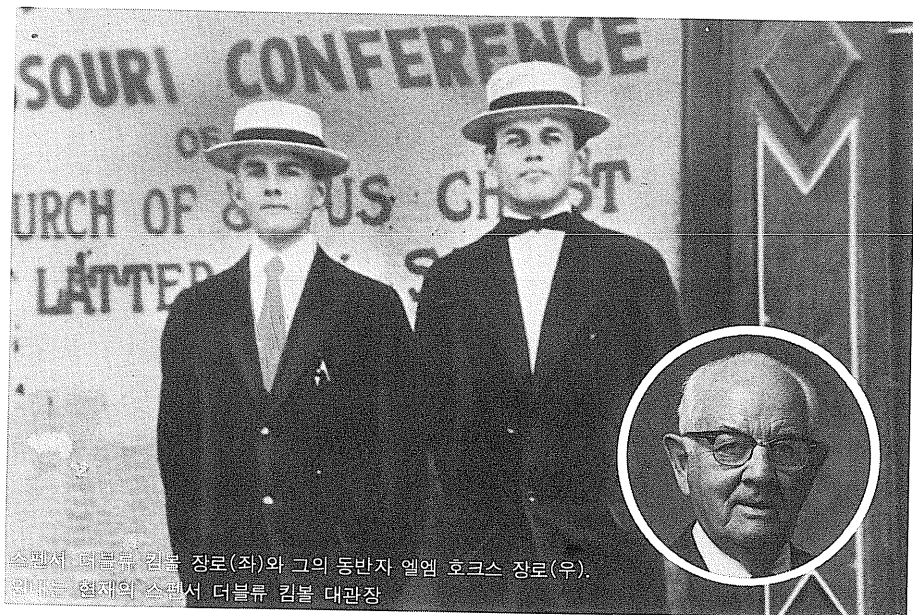
은 우리 인간 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면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1973년 12월 27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분적으로 예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행위와 생각하는 사고와 말하는 언어로 말미암아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타 대학에서 캐시 맥케이라는 훌륭한 음악가인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그녀의 영원한 위치는 일상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아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친십인 제일 정원회

깊이 생각해야 할 일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좌)와 그의 동반자 엘머 호크스 장로(우).
위에는 현재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었습니다. 다른 주에서 온 어떤 운동 선수는 단지 그녀를 보고 그녀의 순수성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자기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번째 생각은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중요한 날들 가운데 하루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미식 축구 코치인 빈스 롬바디씨는 선수들에게 모든 플레이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미식 축구 경기에선 그 게임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플레이는 단지 5개 내지 6개가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언제 중요한 플레이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득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득점하기 위하여 모든 플레이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5번 내지 6번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날들을 갖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결심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찾는 날입니다. “예, 감독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날이 올 때 합당하게 그날을 맞이하고 합당한 자들 앞에 주어지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세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한 여학생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고, 다른 학생처럼 옷을 잘 입지도 못했고, 언제나 불안과 초조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아는 한 남학생은 그녀를 만날 때 인사하고,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역사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학생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학생이 자기를 동료로서 가치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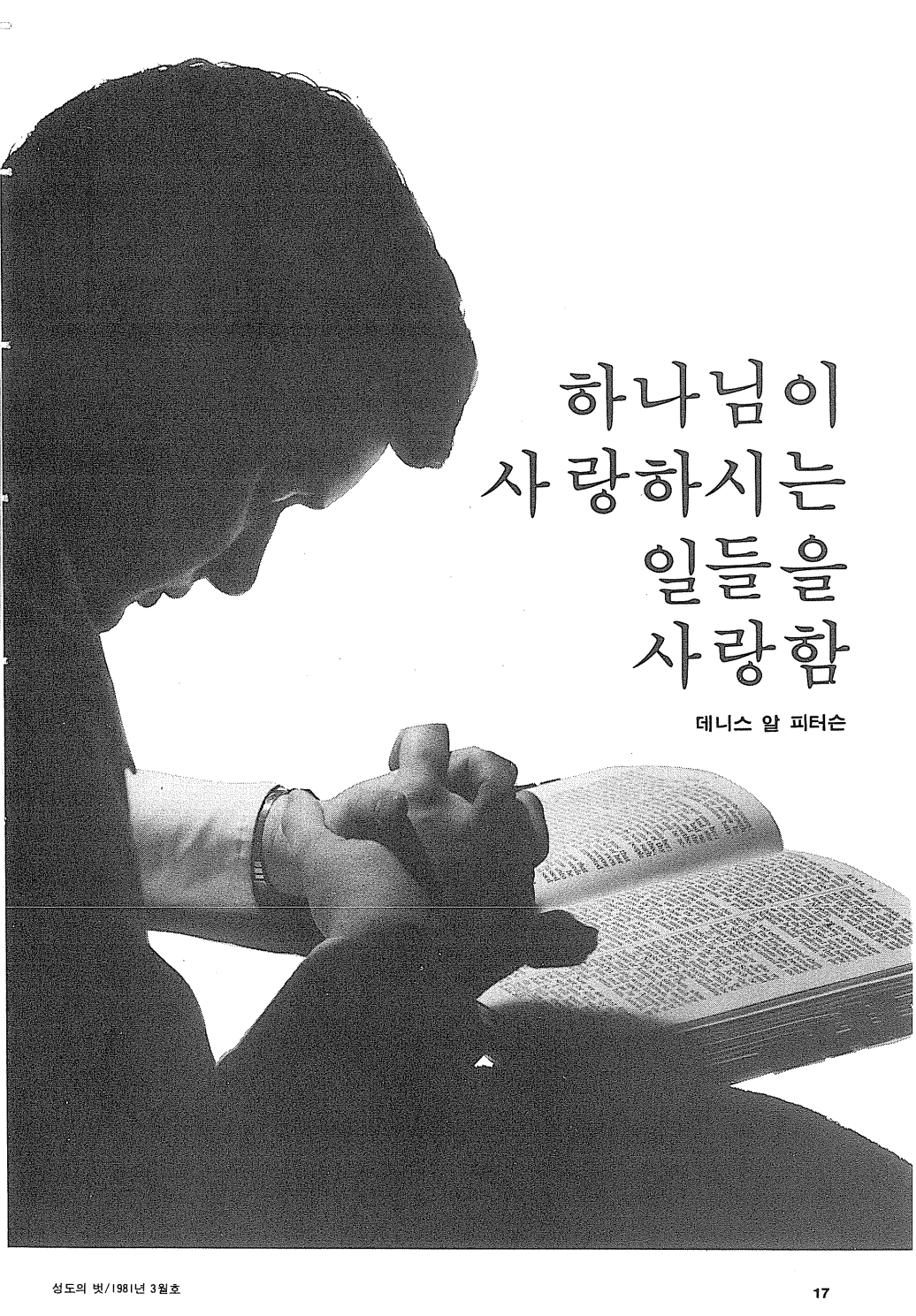
그후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청년이 자기 생명을 전져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전져 주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험 치던 날을 기억하지?”

“그래, 기억나.”

“나는 그날 생명을 끊으려고 했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사람들은 나의 옷차림과 내가 말하는 것과 모습에 대해 비웃었어. 그러나 네가 관심을 가져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살아 있는 거야.” 그녀는 이제 간호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즉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날들, 관심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을
사랑함

데니스 알 피터슨

일 본에서 선교 사업을 할 당시 나는 19세의 풋내기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신앙과 의를 갈구하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께 받아들이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이기심과 자만심과 부도덕과 권력과 돈에 대한 유혹을 보았고, 이러한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망을 이겨 낼 수 있을까? 때때로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스스로 구속복(광포한 죄인에게 입히는 옷)을 입는 것과 같으며, 사탄이 그 솔기를 가위로 자르고 있는데 복음이 나를 그 안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행위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을 발견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처럼 그 발견은 특별한 가족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노씨 가족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우노씨의 행동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착한 아들들은 무서워서 찢찢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5주 후에 우리는 복음에 관한 간증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그 후 우노 형제가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장난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동반자와 함께 그 집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 속에서 하나로 뭉쳐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만일 내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공포감조차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자신을 죄로부터 억제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도록 주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선교사 기간 동안은 물론 그 후에도 매일, 매주 계속했으며, 그 답을 얻기 위해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죄를 짓고자 한다면 언제나 죄를 지을 소질과 능력이 있었던 분이셨다. 그가 거짓말[죄]을 하지(짓지) 않았다는 보장은 외적인 강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광의 동반으로 말미암은 내적 억제에서 오는 것이다.”(예수 그리스도, 제10장, 138페이지)

이것은 나에게 진정한 계시가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방어 능력은 그분의 탁월한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키워진 단순한 의지력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사탄의 사악한 방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갈망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위에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로움이 반영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쇠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진실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나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일종의 소망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심히 다시 경전을 읽어 보았습니다. 물론은 나에게 이것에 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은 사랑,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론은 이와 같이 약속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어다.”(모로 7:48)

나는 수많은 계명과 교훈이 권세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 권세는 외양뿐만 아니라 느낌과 사랑과 욕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중하게 나의 첫번째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속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지고 있다고 느

낄 수 있게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께서 찾고자 하는 일들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은 빛으로 충만한 날이 되었고 그날에는 교회 회원들을 만나 나의 간증을 나누고, 교사로부터 배우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노래로써 표현하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세주의 회생의 상징물을 취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참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단지 휴식하고, 독서하고, 공부하고, 스키타고, 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경험으로 또 다른 성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신권에 관한 교리가 참으로 나의 영육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성신이 동반하심을 느꼈을 때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교성 121:45—46 참조) 이 놀라운 경험이 계속되는 동안 나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부터 나의 목표가 변화될 수 있다는 참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특별히 칭찬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도 분명히 나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분쟁이 점점 커짐에 따라 나는 그가 내 일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나로 하여금 시비를 걸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응수하는 것처럼

럼 그에게 응수했고, 점점 더 반목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조용한 순간에, 나는 이 다름 때문에 자신을 멸망시키고, 성령이 나를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그에게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한 시현이 열리더니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외롭고 상처받기 쉬우며,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민감하고 나약한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발전시킨 위대한 장점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힘이 그를 현재의 위치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그에 대해서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그분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마음 한 구석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나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하루에 적어도 두 번씩 주님께 간구했고, 이러한 날들은 수 주일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꼭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나이 31 : 20) 간다면, 기쁨과 화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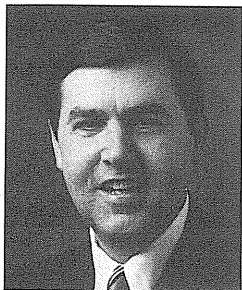
만일 우리가 남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느끼는 그러한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분과 똑같은 존경심을 갖고, 또한 그들을 훈육할 때 똑같은 지혜를 갖는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금전과 기도와 정직과 일과 교회 부름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는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 5 : 2)라고 부르짖을 만큼 극적인 “큰 변화”를 경험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서서히 변화하여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 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오래 참고……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 : 4-7)

하늘의 보좌와 영생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은 선과 진리와 순결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자발적이어서 이 생이 끝난 후에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매일 매일 이것을 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잠을 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



선인장, 십자가, 부활

제프리 알 홀랜드
교회 교육국장

친구가 친구에게

우리는 누구나 진실로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특히 그랬던 일이 생각납니다. 나는 우리집 가까이 에 있는 산기슭에서 놀다가 가시가 많이 돌아 있는 커다란 선인장 나무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피로왔습니다. 선인장 가시가 운동화와 양말과, 바지와, 셔츠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치 창던지기 표적판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산이 흔들릴 만큼 큰소리로 울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선인장 가시가 더 깊이 박히는 듯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서서 울부짖고만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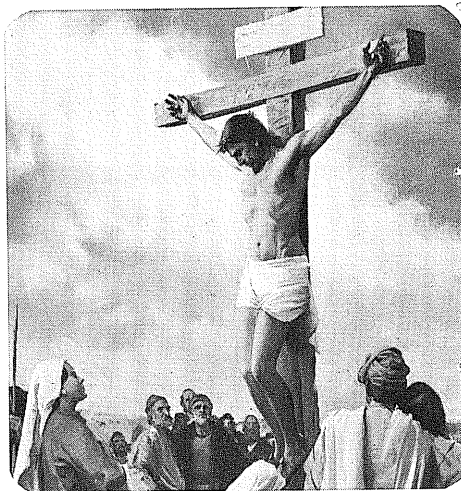
형이 즉시 달려와 나를 구했는데 그 당시 나는 다섯 살이었고, 형은 여덟

살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난처한 광경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가시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는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아픈 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이나 가시를 뽑아낸 후에도 가시가 들어간 자리에는 얼마 동안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적십자사의 헌혈 광고 같았습니다.

마침내 형은 조금씩 빼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아직 빼내야 할 가시는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은 여덟살 된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뛰어내려 가 그의 자그만 붉은 색 마차를 타고 내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왔음

니다. 그는 나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세차게 끌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여—내가 시끄럽게 고향을 내치르기도 했지만—결국 나를 선인장으로부터 구해서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마차에 태우고 험준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 부분은 기억이 희미합니다. 어머니가 옷을 벗기고 몸에 꽂혀 있는 나머지 가시들을 뽑아내던 일이 생각납니다.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결코 잊지 못할 일은 나를 향하여 마차를 끌고 오던 형의 단호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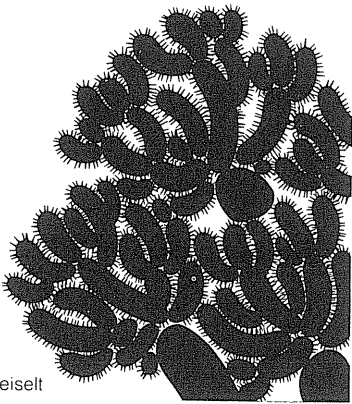


이었습니다. 몹시 걱정이 된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놀랄 만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만일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형에 대한 어떤 기억도 그날의 광경보다는 생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고 나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입니다. (나에게는 이 날이 일년 중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우리를 도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애완 동물이나, 망가진 장난감 또는 선인장 나무 가운데 서 있는 것보다 더 지독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경험을 통하여 계속된 문제였으며, 만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그의 가증스러운 추종자들의 면전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가족과 친구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결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옥에 갇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Preston Heiselt

그러나 우리의 만형인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탄에 사로잡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은 옥문 밖에서 안전하게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모릅니다. 그분은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으며, 그것을 열어 제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은 이렇게 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에 대하여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에게 영예와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겪을 때 주님도 순간적으로는 자신이 혼자이며 아무런 도움도 없다고 생각하셨으나 우리를 돕는 일에서 돌아서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흔들리는 산과 어두워진 해만이 그분이 주신 은사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 분이 부활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로운 봄의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위해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놀랍고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권세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의혹과 절망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나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그 가시가 많은 선인장의 모습 보다는 아름다운 봄철의 꽃이 얼마나 더 훌륭하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만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공포를 진정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



켈빈이 소금과 후추가루를 찾을 때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을 보고 나는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켈빈은 언제나 말하는 데 힘들어 했습니다. 그가 두세 살 때는 매우 귀여웠으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읍니다. 그러나 일곱 살이 되던 해부터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를 언어 교정원으로 데리고 갔읍니다. 그래서 켈빈이 화가 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나아지는 듯했읍니다.

켈빈은 나의 오빠입니다. 나는 그가 말을 더듬기 때문만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소한 일 때문에 당황해 하는 것을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읍니다.

그는 제사가 되어 성찬을 축복하게 될 때를 걱정했읍니다. 그가 성찬을 축복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원했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읍니다. 켈빈은 매우 심각하게 그 일에 대해 생각했읍니다. 그는 아무도, 특히 앞좌석에 앉은 집사들이 켈빈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는 비웃고, 그 성스러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 싫었읍니다.

켈빈은 독서를 많이 했읍니다. 나는 그가 공기돌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모스데니스라는 희랍 사람이 험준한 산을 오르면서, 또는 입에 돌을 넣은 채 큰소리로 외우기도 했으며,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도록 파도를 향해 고함쳤다고 합니다. 나는 켈빈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켈빈은 돌맹이나 그 밖의 무엇이랄지라도 입에 넣으려고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읍니다. 그는 만일 입속에 돌을 넣는 것을 보면 어머니가 화

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공기돌이었습니
다.

그 당시 나는 공기돌을 모으고 있었습
니다. 나는 그것으로 많은 놀이를 하지
는 못했지만, 각각 다른 색깔의 돌을
들여다 보고 그것들을 햇빛에 비추어
무슨 빛이 나는지 관찰하는 것이 즐거
웠습니다. 켈빈은 어느 날 아래 층에 있
는 나의 방으로 내려와서는 문간에 서
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기만 하였습니
다. 나의 오빠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나에게 하고자 할 때 때때로 그렇게 서
있곤 하였습니다. 그는 마른 편이었고
항상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습니다. 켈빈은 여름에는 야구를
좋아해서 이와 같이 머리를 짧게 깎았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동안 그
의 얼굴에는 이상한 빛이 엿보였습니
다. 나는 침대에 앉아 공기돌을 모두 내 앞
에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멧
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니”하고 그는 비로소 말을 꺼냈습
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네 공기돌 대 여섯 개
만 팔 수 없겠니?” 그의 낯이 붉어졌
을 때 그것은 완전히 수척감에 쌓여 있
다는 징조였습니다. 나의 오빠는 그
에게 중요한 무엇을 말할 때는 언제나 낯
이 붉어졌습니다. 언어 교정사는 켈빈
이 말을 더듬는 것이나 얼굴이 붉어지
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빈은 그의 마음을 돌린듯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붉은 공기돌을 집어 그 속에서
거품이 이는 듯한 모양을 보기 위해 햇
빛에 비추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것을 살려고 하지?”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
다. 나는 만일 그가 급히 말을 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말문이 막힌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의 표정에서는 고통을 엿볼 수 있었습
니다. 그러자 그는 몸을 돌려 방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에게 몇 개의 공기돌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던겠습니까? 나는 공기돌
6개를 물에 씻어 말려서 상자에 넣었습
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그의 침대 위
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가 저녁 식사를
하러 식탁에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
습니다. “침대 위에 오빠에게 줄 것을
갖다 놓았어.”

그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에서 무엇인
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공기돌에 관해서는 아
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켈빈은 사
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치 않을 때 매우 조심스러웠습니
다. 그때 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
니다. 주일마다 성찬이 준비되고 있을 때,
나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
었습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도 나는 종
종 눈을 감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는 너무나 주의를 기우려 들으려 했으
므로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열심히 들
으려는 듯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성찬 기도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거듭하는 것이었습
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켈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할 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상심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그와 같이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완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에게는 문제였으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세탁실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의 불을 끄고 발소리를 죽이고 세탁실 문까지 다가가서는 그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켈빈이 입 속에 공기돌을 넣은 채 세탁기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기돌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켈빈이 내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을 닫고 나와서는 비누를 가질러 가는 척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며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켈빈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나는 다시 나와서 나의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몇 분 후에 나는 그가 이층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주 후에 켈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이 있는 주일에 그는 제사로 성임되었고, 그에게 성찬 축복을 하라는 지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금발 머리가 불빛에 빛났습니다. 평상시에 보

통 소년들에게서 느끼는 것보다 그날 켈빈은 유달리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마치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고뇌가 틀림없이 나를 울게 만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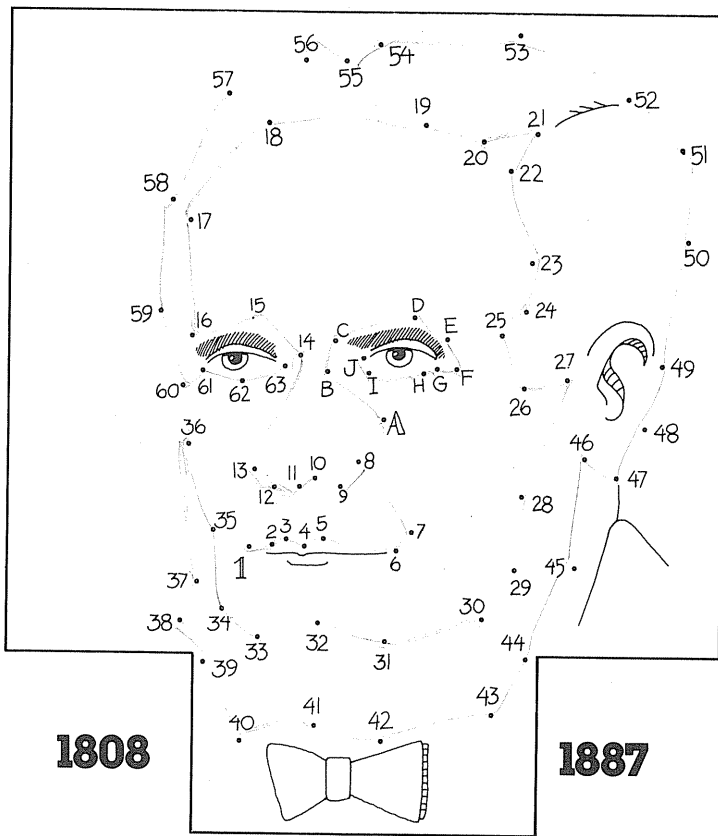
갑자기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었고 제사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성찬식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매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지만, 나는 그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켈빈의 음성은 부드럽러웠고, 그 음성은 예배당 뒤에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아무도 그가 그 주일에 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그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아름다웠으며, 나는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공기돌이 나의 침대에 도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늙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90세가 되더라도 켈빈이 성찬식에서 처음으로 축복을 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한 나는 이 공기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존 테일러

존 테일러는 교회의 3대 대관장입니다. 1863년 그분과 그분의 아내는 캐나다에서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가 되어 수천 수만리를 걸어서 여행했습니다.

1844년 그는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습니다. 난폭한 폭도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으므로 테일러 형제는 밖으로 뛰어내리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갔을 때 총탄이 그의 넓적다리에 박혔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총탄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총탄은 기적적으로 그의 조

끼 속에 들어 있던 회중시계에 맞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69세에 그는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으며, 1880년에서 1887년까지 대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 자신과 교회로 보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어린이들을 부모와 함께 초청하여 그의 부서진 회중시계를 보여 주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랑하고 유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

시리시리표구리



숨어 있는 새

영식은 나무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2마리의 새가 함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 낸 새에는 예쁘게 색칠하세요.



승리로 이끈 투쟁

콘스탄스 폴브

나는 먼지나고 쓰레기로 덮인 길을 따라 낚아서 썩어가는 판자촌으로 가면서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빈곤에 완전히 압도당하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판자집의 한쪽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산산히 깨어진 창문은 낡은 신문지로 가려 있었습니다. 마당은 부서진 유리 조각, 못, 낡은 장통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끈이 풀어진 커튼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습니다. 점등으로 뒤덮인 벽과 마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갈 때 15~20마리의 고양이떼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람에 시달려 다 낡은 문을 두드리면서, 브리감 영 대학에서 익힌 안락한 생활을 잠시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대학 구내의 안전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프로보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곳에 오게 된 학생 간호부이며, 나에게 주어졌 어려운 상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몇 주 전에 공중 보건 연구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학생 간호원으로서 실제적인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일하기로 작정했으나 첫날, 교수님이 학생 간호원은 작은 마을에 있는 보건소에서 직원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자원해서 그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역제할 수 없었고, 얼마 안있어 새로운 집과 새로운 책임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 보건소에 있는 두 명의 공인 간호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군에는 공인 간호원이 2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진료 카드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운 느낌이 들었고, 세밀히 관찰하고 배울 시간이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상관은 3가지 일을 맡기고 나서 의미깊게 나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더 주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맡기기가 좀 신경이 쓰이는군요.” 그녀는 두꺼운 황색 철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여인은 심각한 의학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요. 그녀는 과거 2년간 모든 진료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는 그녀를 도우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싫증이 날 지경이에요. 당신이 노력하다가 만일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환자를 맡아 주십시오.” 나는 이 늙은 여인에 대해 커다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료 카드를 읽고, 그녀가 70세가 넘었으며, 몇 년 전에 불비는 군중 때문에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주요한 혈관과 근육에 심한 손상을 입었고, 치료는 받았지만 다리 하부의 혈액 순환이 손상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혈액이 정체되어 있었고, 노폐물이 쌓여서 주위 조직에 압박을 주어 그 부분의 건강한 조직을 잠식해서 하퇴 케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의사는 훌륭한 의사였으나 자상하지 못하고 좀 거칠었습니다. 이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녀는 몹시 겁을 먹고 다른 의사에게도 보이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의사는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다리는 몹시 아프고 감염되어 쓸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는 화농성 궤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홍색의 피와 죽은 조직이 뒤섞인 누런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은 부분적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여인은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해주며 시장을 파주는 이웃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우려고 했으나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했고 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나는 처음 그녀를 만나러 갈 때, 사실상 그 병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 있었으며, 길고 흰 머리카락을 흐트린 채 절룩거리며 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겨우 소개를 끝내기도 전에 나가라고 하면서 간호원들이 모두 자기를 홀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집에 있을 동안 나는 이전에 꼭 한 번 말아 본 적이 있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관은 나의 진단이 옳다는 것

을 확인하고 그 환자에게서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늙은 여인은 단지 몇 주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치료하는 동안에 그 노파가 죽으면 변호사가 간호원으로서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를 심문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가 그 책임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노파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처지에서 생을 끝마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관에게 1주일만 그녀를 돌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두번째 날에는 그 노파가 나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그녀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꼭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세째날, 나는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거부하면 죽을 것이라는 증거를 들이였습니다. 그녀는 관심이 없었고, 살아야 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나는 크게 실망하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도움받기를 끝까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까?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날은 나와 한 방을 쓰는 친구도 같이 무릎을 꿇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혼을 다하여 지혜와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다음 며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알고 있었다우. 아가씨를 처음 본 날부터 아가씨가 내게 보내진 분이라는걸. 나는 아가씨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러한 빛을 아가씨의 얼굴에서도 보았다우. 나는 아가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우.”

할지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속이나 의부에서 아무런 음성도, 시현도, 제언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워서 그 노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과산화수소를 보였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큰 감명을 받고 병원에서 이 약처럼 고통이 없는 약을 사용하여 치료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들이 될 수 있으면 아프지 않게 치료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를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 노파가 곧 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주말을 보내기 위해 프로보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파를 위해 식품을 사다 주었던 어린 소녀의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노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모두 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노파가 병원에 갈 용기를 갖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전 보건소는 축제의 분위기에 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노파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빛나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가씨가 나를 설득시켰기 때문에 병원에 왔다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말일 성도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우 아가씨를 처음 본 날부터 아가씨가 내게 보내진 분이라는 걸. 나는 아가씨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러한 빛을 아가씨의 얼굴에서도 보았다우. 나는 아가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우.”

나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2년 동안 노력했던 것을 단 한 주일내에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안도감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3개월내에 완쾌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와드의 회원들은 그녀의 집을 개축하고 그녀의 마당을 봉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녀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후 그녀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상호부조회와 주일학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생활에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딸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와의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인 신앙과 노력을 통해서 커다란 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계속해서 노력할 때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졸업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하는 청년과 접견했는데 그는 십대에 심각한 범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말일성도 가족의 일원이었고, 범법할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독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생활은 과거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교회에서 회의적인 입장에 서게 한 생애의 초기에

내린 결정에 관해서 의논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행하는 일이 그릇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일들을 다시 바로잡고 선교사로 나가리라 확신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고 선교사로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는 이 젊은이의 열망을 보고 기뻐했으나, 한편으로는 마치 자신이 설정한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듯이 올바른 길을 떠나 파피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다가 다시 순종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명백히 계획적이고

젊은이 여러분, 주님께서 걸고 계시는 신뢰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계산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청년과 만난 이런 경험이 이때 한 번뿐이었다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금지된 일들을 한 번쯤 해보려는 경향과 유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구히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자극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순간적으로 빠져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험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탈선 행위에서 되돌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에게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를 던지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사적인 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죄는

계산하고 예정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 범법자가 죄의 결과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은 거짓의 아버가 자행했던 가장 교활한 거짓 가운데 하나에 쉽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지방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반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도록 부탁받은 학생들은 사회로 나아가는 관문에 설 때 그들 앞에 놓여진 벽차고도 높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성인 연사는 오늘날 청소년의 덕성과 가능성을 칭찬하고 장차 정복해야 할 분야와 졸업생들이 개척해야 할 새로운 학문 분야와, 치료법을 발견해야 할 무서운 질병과 지상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 올 외교와 인간 관계의 돌파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이고 영감적인 식전이었습니다.

나는 이 식전에서 이 인상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부분이 말일성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은 자신이 수행한 일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나면 곧 겪게 될 경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졸업생들에게 그들이 인류를 위해 바람직한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될 희미하고 막연하고도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지금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년에 또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저녁과 내일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나는 이 졸업생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무리 가운데에는 아무 생각없이 또는 계획적으로 졸업식을 마치자 자신과 자기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치욕을 끼치는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그들의 생활에서 영구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적인 기쁨과 도전을 위해 재미로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누적되면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한 자들의

생활에 불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성은 냉혹하게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모든 인류가 잃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에 충실하고 시대의 유행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심한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빛나는 소망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종적인 결과에서 중대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을 삼키려 하는 악에 대항하는 최후의 위대한 보루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청렴 결백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을 느낍니다. “이는 오늘이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임이니라. 또한 나 주는 마지막 날에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서 63 : 58)

우리 앞에 놓여진 날들을 볼 때, 나는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행위를 볼 때는 주님의 경고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주님께서 걸고 계시는 신뢰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

십일조와 축복

케이스 무어

몇 년 전에 나는 십일조를 바치면 계산을 청구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십일조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했을 때 나는 더욱더 가난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었고 와드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십일조를 내지 못했을 때,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우편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감독의 집에 가서 5불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고작 수입의 1퍼센트에 불과한 돈이었으나 어쨌든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달에는 10불을 바쳤습니다. 몇 달 후에는 온전한 10퍼센트 대신 5퍼센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록 소액을 냈지만 월말에 나의 은행 계정은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달 초과 인출했기 때문에 봉사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10퍼센트를 지불하자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놀라게도 월말에 은행에 잔고가 남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적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김에 따라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은행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나는 십일조를 지불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연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비웃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일조를 바치고 바로 그 다음날 우편으로 내가 잊었거나 전혀 모르고 있던 부채에 대한 엄청난 계산서를 받은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용기를 잃었고, 십일조를 낸 것을 후회할 뻔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십일조 낸 것을 아까와 했고 그것을 도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않았던 계산서를 받고 지불했지만 아직 돈이 남아 있어서 조그마한 사치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십일조라는 영적인 율법은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재정적인 공포에 가득 차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부담없이 이러한 충고를 드립니다. 감독이나 와드 서기에게 “약간의 십일조를 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 후에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이 내십시오. 완전한 십일조를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무엇인가 십일조를 내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의심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실망을 이겨 내십시오. 그렇게 할진대 아마 몇 달 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헤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정기적으로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게 될 것이며 마음에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누구나 친구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비회원으로서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소개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교회에 가입하라는 권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교회로부터 윈터 쿼터스로 넘어가는 물몬 기념 교량의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뜨는 의식에 참석하라는 지명을 받아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선교부 산하에 있는 한 지방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17년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살았으며 오마하로 전근할 때까지 유니언 퍼시픽 철도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오마하로 이사한 후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은 왜 솔트레이크에 계실 때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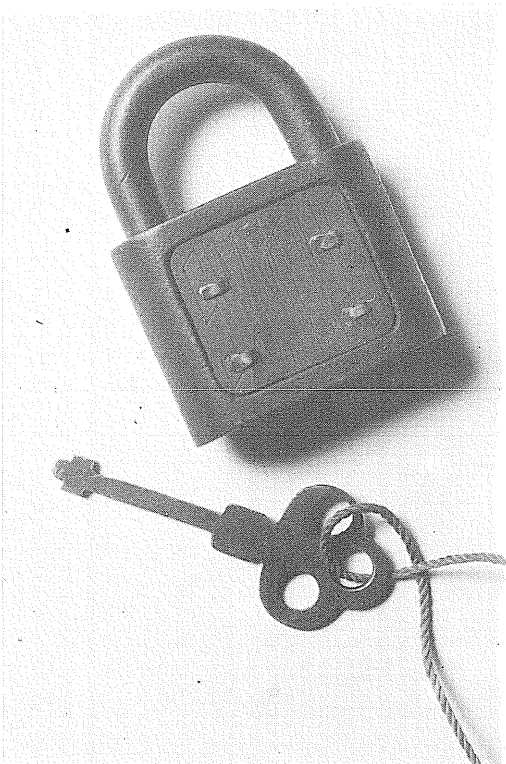
나는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차를 타고 뉴멕시코 파밍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선교부장은 12년간 유타주 욱든에서 살았으나 그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욱든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와이오밍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워드 감독이었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리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감독님, 저도 교회의 회원이 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교회 회원이 되라고 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금요일 저녁에 침례를 받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분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녀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나는 여러분의 마을에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감독님이 교회에 가자고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꼭 노인이나 19세 청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를 여러분의 와드나 신학 연구원 중등부 활동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그들을 방문할 약속을 하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 : 15)

나는 남부에서 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아리조나주 웨닉스에서 어떤 형제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세가 많은 형제였습니다. 그는 그의 조부가 1840년에 미시시피주에서 최초로 개종자가 된 사람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요성 18 : 15)

읍니다. “그때 이래로 나의 아버지와 그 후손들은 100여 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해 왔읍니다.” 그 당시 선교 지역에 나가 있었던 인원이 15명이었고 그들 가운데 3명이 우리 선교부에서 근무했읍니다.

나는 그 조부께서 교회에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난 1940년에 관리 감독에 임명되었는데 그후 어느 선교사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마침 그의 손자가 그 모임에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읍니다. 모임이 끝나자 그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리차즈 형제님, 이제는 165년의 봉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에 10년 내지 15년을 더해 간다면 또 다른 100년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읍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1840년에 그들이 전대도 가지지 않고 말라리

아에 시달려 가면서 미시시피강의 늪을 헤쳐 나간 그 선교사가 단 한 사람만 교회로 인도했다면 자기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나 그 후손이 개종시킨 개종자가 봉사한 시간을 제외하고 그들이 봉사한 선교 사업의 기간만도 165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봉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 : 20)고 하신 보물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군에 복무하든지, 선교사로 봉사하든지, 친구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정직한 남

나라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서도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다음 말씀은 참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기이한 일……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 : 14)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릴 만큼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조각 그림 맞추기 장난감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조각을 모두 책상에 늘어놓고 한번에 하나씩 집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을 본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린의 목, 코끼리의 코, 광의 뒷벽을 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맞추어지면 아름다운 모양이 됩니다. 만일 한 조각이라도 버리면 모양을 망치게 됩니다. 여기 저기에서 자그마한 물론 사상을 접할 때는 그 전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쳤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것도 빼어낼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으로부터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솔트레이크에서 두 교회가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캘리포니아, 오페론, 워싱턴, 아이다호, 유타, 네바다 등지에서 온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물론 교가 진정 어떠한 종교인가에 관해 2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관리 감독이었을 때 우리는 교회의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리스 신

전을 짓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마련하여 어느 날 대관장단에 보였습니다. 전기와 상하수도 설비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계획서는 세로 122센치미터, 가로 76센치미터의 크기로 84페이지에 달했고, 여기에는 수천 개의 그림과 도면과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성된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는 구멍 하나도 파지 않았었습니다. 건축가가 해야 할 일은 이 설계도를 보는 방법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25페이지를 빼다면 완공된 건물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설계도를 갖고 온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건물에 맞추어 보십시오.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건물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물론 신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전선, 상하수도, 시멘트, 목재 등과 같이 그 신전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재료로 세워진 건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에 맞는 다른 건물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치켜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이사야 46 : 10 참조)고 했습니다. 청사진을 이해하는 법을 아신다면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 즉 주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가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맞추어 보십시오. 이 청사진에 꼭 들어맞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물론 주님의 청사진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들어맞는 다른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많은 성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설명하기 위해 단 하나의 성구만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구세주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나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교회를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이것과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무한한 땅에 관해 요셉이 하신 약속과 연관시켰습니다. (창세기 49 : 26 참조)

“모세는 그 땅에 관해서 설명할 때 다섯 번이나 보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 33 : 13—17 참조) 여러분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이미 말한 것, 즉 그 땅이 바로 미대륙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기록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37 : 15—20 참조) “여러분 가운데 요셉의 기록에 관해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구세주께서 이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바로 다른 양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어떤 시대에도 아버지께서는 구세주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양이 누

구인지 말하도록 명하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고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5 : 11—24 참조)

우리는 깨닫기만 한다면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선지자는 이것을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사 29 : 14)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선교 사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다호주에서 어떤 여인이 개종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대회 때마다 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동 병원을 위해 써 달라고 500불의 수표를 보내 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느 성도 한 분이 그녀를 방문하여 그녀가 진리를 알았다면 미래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걸 수 있으리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근에 그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보다 더 큰 사랑을 이 교회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라바마의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으로서 품위있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녀에게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 생애에서 장로들이 복음을 전해 준 때부터 현재까지 느끼고 있는 그러한 기쁨은 느껴 본 적이 없으며,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보고를 날마다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랜트 대판장이 자주 말씀하셨던 개종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스칸디나비아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에게로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십일조를 바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독은 금식 헌금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동의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예배당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형제는 그 돈이 십일조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그와 접견을 하기도 전에 그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후 감독은 그에게 가서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감독님은 내가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군

요.” 그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야의 나라(노르웨이)에 와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준 선교사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이 그 선교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드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또 이기셨군요. 그를 선교사로 내보내십시오.”

여러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앤튼 에이치 린드 부장은 수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부임할 때 주민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만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때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홀랜드를 떠나기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집을 떠나 홀랜드로 가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내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집에 갔습니다. 키가 작은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 몇 주 전에 우리 딸이 시온으로 떠날 때도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형제님이 떠나는 것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프군요.” 그때 나는 런던 형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기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화려식의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손을 잡더니 그 손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런던 형제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선교사의 덕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남에게 전하는 책임을 회피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노니 여러분이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다음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복음을 자기네 언어로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렸습니다. 그것은 철학 때문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간증 때문입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으로 나갈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예수가 세상의 구속주이며, 요셉 스미스가 그의 예언자이며, 물론경이 참되다는 간증의 음성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지 않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 가운데 간증하게 되면 그 말은 정직한 자의 마음을 찢르게 되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뉴욕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대관장께서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것을 요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잠시 멈추어서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안된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나, 진리에 관한 지식을 전해 줄 사람들에게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백만 달러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더 가치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한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그의 전공과 관련된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 나는 형제님

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집으로 돌아가면 부탁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내가 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 나와 함께 일하는 한 젊은이가 있소. 그는 내가 물몬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왜 내가 물몬이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한번도 말한 적이 없소. 한번 낱을 잡아서 그를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할 생각이에요. 식사 후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소.”

요약하면, 그는 이 사람과 그의 아내가 침례받도록 인도한 기쁨에 관해서 2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써 보낸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휴스턴에 갔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지금 그는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 북서 지방에서 한 젊은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사 경험을 백만불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뒤에 앉아 “나는 홀랜드라는 작은 나라에서 얻은 최초의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백만불과 바꿀 수 있을까?”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의 아들, 딸, 손자 및 증손자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만일 내가 백만불을 받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판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 인간의 아들이 단 혼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보상하고도 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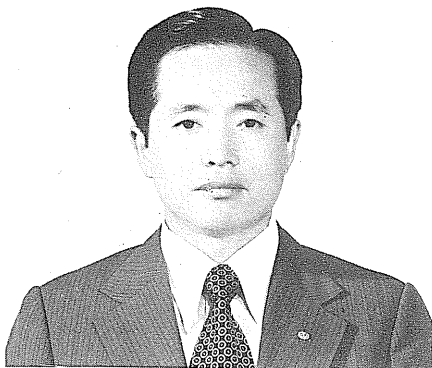
일이 이 교회를 위하여 행한 것입니다.

매튜 카울리 형제는 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 3월 12일에 브리검 영 대학에서 열린 어느 영적인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위대한 선교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느낌을 너무나 명백하게 표현했으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바와 같이 나는 뉴질랜드의 두 선교부에서 일했으며, 두 대학을 다녔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생을 시작하며, 뉴질랜드의 선교부와 두 대학에서 받은 교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모든 관점에서 뉴질랜드의 선교부를 선택하겠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성격 형성이라는 관점과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변호사나 대학 졸업자로서가 아닌 선교사로서 서는 것이 기쁩니다.” (신앙의 사람, 매튜 카울리, 203페이지)

이것이 나의 느낌입니다.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해야 할 프로그램이며, 우리는 훌륭한 생활을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16 참조) *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합시다”

서울 스테이크 부장
최 욱 환

지난 겨울은 근래에 보기 드문 추운 겨울이었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온 세상은 눈으로 뒤덮이고 대자연의 활동은 마치 정지하여 쉬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눈 속에서도 보리 싹은 눈을 뚫고, 시냇가에 버들강아지는 파릇한 눈망울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주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지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상에 보내신 목적 중의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지상 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힘써 일하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환란을 이기고 오래 참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에 살며, 많은 유혹이 우리를 에워싸고,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가시밭길이라도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를 섬겨야 합

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택하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신 사실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역사적 사실은 우주를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으로 작은 일에 충실하고 의에 굽주린 자가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사회의 기본 단위 조직인 가정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의롭고 정직하고 용기있는 일꾼으로만 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몇 가지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며 살아야 하는 경륜의 시대입니다. 먼 곳에 목표를 정하고 걷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중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의 날은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며, 지상 생활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사탄의 무리가 좋은 옷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지녀 선악을 판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3: 24-30)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하루하루의 결산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잘 준비하고 새로운 목표와 고결한 이상과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겠습니다. 생명의 떡보다는 화덕 속에 든 떡에 관심이 있고 생명수보다는 우물 안에 관심이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겠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를 회

개하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한 잘못을 보상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씻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스러운 행위를 그리고 장차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로써 그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범한 과오를 스스로 보상할 수 없다면 누가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의 죄는 깨끗이 씻기우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분홍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예언자입니다. 1973년 3월 8일 대관장님께서 손수 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시온의 서울 스테이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후로 이 땅은 많은 축복을 받았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땅은 위대하고 영화로운 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어느 땅보다도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피흘린 과거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영화롭고 화평한 미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백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외적의 침입이 없게 하시며 이곳이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인 거룩한 신전이 서게 하시어 영원토록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